

1991年度 · 會員社 · 業務計劃

한국전력공사

韓國電力公社는 급증하는 電力需要로 예비율이 급격히 감소,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으며 이같은 電力需給불안은 앞으로 지속될 전망이다고 진단하고 電力需給안정의 관건을 既存設備의 공급능력 확충과 需要管理를 통한 침두부하 억제로 설정, 올해에는 既存設備 공급능력을 22만 5천KW 확충함과 아울러 1,962만 9천KW로 예상되는 최대수요를 56만 9천KW 절감한 1,906만KW로 수요조절 목표를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需要管理方案으로는 침두부하억제, 요금제도의 적극 시행과 料金構造 개편을 이룩하고 여기에는 수급조정요금제의 적용대상 확대, 補償基準 상향조정, 조정기관 및 회수를 연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 業務用, 産業用(갑)에 적용하는 계절별 요금의 차등폭을 현재의 7~10%에서 대폭 확대하고 시간대별 差等料金制度 하계피크시간대 조정 및 피크시간요금을 상향조정하며 주택요금의 누진체계를 4段階에서 5段階로 늘리면서 기본요금 적용기준도 3個月중 최대전력에서 12個月중 최대전력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밖에 대국민 '電氣消費節約' 추진을 위해 절전형 조명기구의 보급을 확대하고 전국 1,140個業體를 대상으로 전력설비의 에너지진단을 실시, 節約을 유도하면서 사업소별 자체 需要豫測에 의한 책임공급 및 판매와 하계 냉방부하 심야이전을 위한 축냉설비보급추진으로 빙축열 냉방설비관측을 위한 弘報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2001년까지 향후 10年間 현재의 設備容量(2,102만1천KW)과 맞먹는 1,987만 9천KW규모의 설비건설에 필요한 44조원(발전설비 23조원, 송배전설비등 21조원)의 投資財源 확보를 위해서는 전력채 발행과 외화대출, 산은시설자금등 政策金融 확보가 절실하다고 건의하고 이외에도 4~5천억원 규모는 별도대책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原電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자체 原電 안전운영 평가지표를 개발운영하고 原電安全點檢을 위한 國際協力を 강화하는 한편 오는 9월부터 94년까지 原電從事者 및 周邊地域住民에 대한 역학조사실시와 原電地域住民과 공동채취한 시료를 지역대학에서 分析 및 評價를 추진함으로써 조사의 객관성을 제고시킬 방침이다.

또 지속적인 經營合理化로 효율적인 조직의 운영을 도모하면서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사업소기능을 보강하고 전력원가절감관리체계의 원가분석·통제위주로 전환을 통해 原價管理業務의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금년중에 長期電源開發計劃에 의거, 수력 5기, 내연화력 1기등 6기 16만 9,800KW를 건설하고 92년부터 96년사이 액화천연가스 화력 6기, 원자력 2기, 유연탄화력 9기, 양수발전소 2기등 총 21기 1,141만KW를, 2001년까지 원자력 3기, 유연탄 7기, 양수발전소 2기등 총 12기에 830만KW의 발전설비의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폐만전쟁 발발시에는 非石油類발전소를 최대한 가동, 油類發電所 가동을 억제하는 한편 삼천포, 보령, 인천, 평택화력등 有煙炭, LNG發電所의 정기보수를 연기하고, 비축유류(B.C유)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전량 油類發電에 의존하는 제주도 및 도시지역 수급용으로 최우선 사용하는 등 우선순위를 정해 사용할 예정이다.

또 油類發電의 하루 소요량은 11만5,000배럴로 월동기 우리나라 총유류소요의 9.2%에 해당하고 현재 사용 가능한 유류비축량은 30일분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美國 및 印尼로부터 發電用 油類를 긴급수입하고, 電氣 消費節約 활동을 강화하는 제반방안에도 불구하고 부족전력이 발생할 경우에는 社内 電力需給對策委員會를 본격 가동, 제한송전을 포함한 비상수급 조정 등의 대책을 수립함과 아울러 全社的인 모의 비상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가스공사

韓國가스公社は 올 한해동안 도시가스용으로 75만 2천톤을 포함 총 2백 56만 3천톤의 LNG를 공급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韓國가스公社가 마련한 91年度 사업추진계획에서 이같이 밝히고 LNG 全國事業을 위한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병행하여 LNG추가물량 확보 및 도입선의 다변화, LNG수송계약추진, 그리고 研究開發 및 國際協力を 강화하여 2000年代 전국도의 천연가스 供給基盤을 구축하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都市가스用 需要를 충족하기 위해 中部圈 가스공급배관 건설에 주력하여 평택에서 대전간 총 149km의 주배관을 '93年 6월에 완료하고 嶺·湖南 및 南部地域의 총 928km의 주배관 建設을 '97年 3월까지 마무리지음으로써 全國 천연가스 供給을 통해 지역간 均衡發展을 도모하기로 했다.

천연가스의 普及擴大를 위하여 연료사용 규제대상 아파트 및 건물에 대한 가스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사용절차를 간소화하고 특히 일반 취사용보다는 냉·난방용의 需要를 적극개발해 에너지源의 다양화와 環境改善에 적극 부응키로 했다.

首都圈의 천연가스 수요급증에 대비하여 수도권 신도시의 熱併合發電用 및 도시가스용 공급배관망 공사를 추진하게 된다.

특히 인천화력에서 일도화력까지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연장공사를 오는 10월경에 마칠 예정이다.

또한 LNG의 추가물량 導入은 인도네시아와 기존의 장기계약물량 이외에 94년부터 20年間 2백만 톤씩 추가도입과 함께 92년부터 95년까지 총 3백 50만톤을 추가로 도입키로하는 도입의향서를 작성, 교환했다.

말레이시아와는 95년부터 20年間 매년 1백만톤씩구입키로 하는 도입의향서를 작성 교환해 LNG 물량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선사에 의해 수송을 해오던 방식에

서 벗어나기 위하여 94년부터는 국내선사에 의해 LNG를 導入하기 위해 오는 3월에는 현대상선과 수송계약을 締結(인도네시아취항)하고 4월에는 제 2선(말레이시아취항)을 유공해운과 輸送契約을 체결키로 했다.

가스産業의 기술고도화를 위해 研究開發院에 전문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國際 가스관련社와의 技術協力 및 유대를 강화키로 했다.

國際協力的 강화를 위해 오는 10月 20일부터 24일까지 국제 LNG수입자그룹(GIIGNL) 서울總會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經營의 내실화 및 다각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專門엔지니어링社를 올해안에 설립하고 냉열사업 등 新規事業 參與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管理公團은 금년도 중점추진사업으로 ▲ 에너지 利用效率 向上을 통한 원천적 에너지 절약 기반확충 ▲ 에너지 消費節約 의식구조개선을 위한 홍보강화 및 情報의 提供 ▲ 에너지 利用合理化를 위한 제도보완등 3대기본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키위한 細部推進計劃을 마련했다.

産業部門에 있어서의 역점사업은 에너지節約 新技術의 도입 보급 및 실용화개발을 촉진하고 실태 조사등을 통하여 도출된 改善方案을 제시, 이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各業體의 에너지이용 效率向上을 도모한다는 것을 주요 골간으로 하고 있다.

우선 에너지절약기반이 미약한 中小企業 250個 業體를 선정, 무료진단을 실시해 에너지節約 실패 요인을 도출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한편 新技術도입 및 노후시설 개체를 위한 시설투자를 유도키로 했다.

또한 公團단지 集團에너지供給 시스템을 확대 보급키 위해 금년중으로 群山·梁山·淸州·仁川 南洞등 4個工業團地에 대한 정밀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포항제철, 반월공단, 大邱성서공단 등 3개공단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잉여폐열을 인근

에너지경제연구원

공장 및 주택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타당성 조사도 아울러 시행하기로 했다.

家庭·商業部門에는 건물의 에너지效率向上을 위해 건물설계단계에서부터 절약형설비가 적용되도록 技術指導 및 데이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비롯 기존건물의 에너지손실방지를 위한 診斷擴大 에너지節約 실태점검, 10%에너지節約 목표달성을 위한 공공건물 에너지절약 지도실시, 共同住宅 열량계설치 의무화에 따른 지도장려등을 통해 대형 건물에 있어 원천적인 節約方案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輸送部門에 대하여는 대형운수업체에 대한 에너지사용效率向上을 위해 191個 시범지정업체를 대상으로 經濟運轉技法, 차량관리기법지도를 실시, 燃比개선을 유도하고 그의 일반 중소운수업체들에게는 경제운전기법 보급을위한 教育資料 및 弘報 pamphlet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代替에너지開發事業은 기본계획에 의거 금년말까지 代替에너지 技術開發 기반을 구축하고 특히 지금까지의 기초연구단계에서 實用化기술개발로의 전환을 도모키로 했다.

또한 實用化가 가능한 분야를 도출하여 민간기업주도 研究事業으로 집중 육성하고 분야별 전담 관리제를 정착하는 등 대체에너지 技術開發전문관리체계 구축을 실현키로 했다.

이와 아울러 태양에너지, 메탄가스,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등 개발된 代替에너지의 利用 및 보급 촉진을 위해 금년도에는 태양에너지 3,500개소, 바이오에너지 60基, 폐기물아용 에너지資源 120基등을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같은 각 분야별, 사안별 에너지節約施策의 추진과 함께 에너지관리자 및 일반국민(에너지사용자)들에 대한 에너지節約意識의 정착화를 위해 教育 및 弘報·啓蒙에 있어서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에너지管理公團은 금년도 에너지節約施設資金 지원방향을 에너지절약효과가 큰 優秀節約設備(시범보급대상설비)에 집중지원(중소기업위주), 代替에너지 기술개발부문에 두고 세부지원계획을 마련해 두고 있다.

에너지經濟研究院은 에너지 價格體系의 합리화의 도모 및 수급적정화를 위한 에너지政策의 발굴, 국내 부족자원의 활용극대화와 海外資源開發의 효율성제고를 통한 에너지·자원자급도 제고 및 관련정책의개발, 에너지節約의 효율적 추진과 環境保存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 에너지政策의 발굴등을 중점적으로 연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초분석연구로서 에너지 동향분석연구와 北韓의 에너지·資源調查研究를 실시하고 에너지·자원 데이터뱅크의 운영과 에너지消費 통계시스템 운영을 통해 자체 데이터베이스(KEDB) 활용방법의 개선 및 國內에너지 統計資料의 작성·발간을 이룩할 방침이다.

아울러 國際에너지政策세미나 추진, 海外專門家 초청사업 추진, 공동연구協力事業 실시, 產·研 연구협력사업의 강화를 모색하는등의 91年 主要業務를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 수급분석연구에서는 정기적으로 國內 에너지需給 실적의 분석 및 평가를 통해 産業別, 部門別 에너지需給 실태분석과 동향분석을 통한 수급에로요인을 파악하면서 수급관련 정책이슈의 수시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급권역 광역화에 따른 연탄수급 影響分析 研究에 있어서는 연탄공급권역 조정에 따른 需給效果 분석과 지역별 연탄수급 構造展望 및 유통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공급권역 廣域化에 따른 補完對策을 수립 할 예정이다.

石炭産業綜合對策研究를 위해 폐광지원산업 추진실적 및 지원효과분석을 실시하고, 폐광 재해근로자 支援制度의 문제점파악과 改善方案을 모색해 石炭産業 장기발전을 위한 산업합리화 政策開發研究를 실시하고 발전용 무연탄 需要擴充 및 長期供給契約制度 도입 연구를 위해서는 고열량탄의 발전용 수요전환방안 모색과 고열량탄의 발전부문 장기공급계약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代替에너지 재정지원투자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에 있어서는 代替에너지開發에 대한 시설투자 效

果分析和 재정지원 투자의 效率性 제고방안을 수립하여 同지원제도의 합리적改善方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國內석재산업육성을 위한 중장기 대책방안과 海外油田開發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위해서는 「석재 산업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육성전략의 수립과 석재의 國內유통구조개선 및 효율적인 政府支援方案을 모색하는 한편 民間企業의 해외유전개발사업의 사례분석과 海外油田開發事業에 대한 政府의 지원 방안 모색을 통해 그간의 시행착오를 개선하는데 연구의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수도권 승용차 石油消費실태 및 節約對策研究로써 수도권지역 승용차 연비 消費實態 조사분석과 승용차 燃料浪費의 요인별 분석 및 대책강구를 중점 추진하면서 에너지 環境經濟 연구차원에서 에너지 利用과 環境보호와의 조화를 위한 정책발굴 및 IPCC국제협약에 대한 우리의 對應方案도 아울러 강구한다는 전략이다.

지자체 실시예 따른 原電事業 영향분석과 대책 방안 연구에 있어서는 原電事業이 지역에 미칠 經濟·社會·文化分野와 住民意識에 대한 영향도 분석을 실시하고 지자체실시예 예상되는 문제점분석과 중앙과 지방간의 이익조화를 통한 原電事業의 長期政策方向을 제시하는데 主要重點을 둘 계획이다.

그리고 基礎分析研究로서 주간 에너지동향, 월간 가격동향의 지속발간과 주요 정책이슈 分析報告書 발간등의 에너지動向分析연구는 물론 南·北韓 관계 개선추진에 따른 北韓의 經濟 및 에너지·資源情報의 조사를 통해 에너지분야의 南北韓 경제협력방안 모색에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유관기관간의 情報資料 교환을 위한 네트워크형성으로 에너지·자원데이터뱅크를 운영하고 데이터베이스 이용방법의 개선과 프로그램 확장을 통해 명실상부한 에너지情報산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에너지밸런스 體系改善 및 작성, 國內에너지 統計資料 작성과 발간등 에너지消費統計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월동기 대책을 위한 가정 에너지 소비표본 調査分析도 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4월의 세계은행(IBRD) 공동세미나 6월의 태평양경제협력기구(OPCC) 에너지·資源

專門家그룹 會議, 9월의 第4回 國際·에너지 資源政策세미나등 3차례의 國際에너지政策 세미나를 추진하고 금년중 2회에 걸쳐 海外 專門家를 초청, 워크숍·세미나형태로 에너지部門의 주요 현안분석과 의견교류를 가질 예정이다.

또 國際共同研究事業의 일환으로 아시아·태평양개발센터(APDC)와의 공동연구와 태평양경제협력기구, 에너지·자원포럼(PECC/MEF)共同研究를 위해 각각 1명씩의 同연구요원을 파견할 計劃으로 있으며 產·研 研究事業강화책으로 협동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에너지專門家 육성을 위한 教育制度의 확대도 고려하고 있다.

대한광업진흥공사

大韓鑛業振興公社는 '91年度 經營目標의 基本方向을 國民經濟의 지속적인 成長에 필요한 에너지 및 산업원료 광물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民營鑛山 및 海外鑛物 資源과 石材資源의 개발에 대한 효율적인 支援으로 삼고 있다.

올해 11만4,800m의 탐광시추와 3만5,000m의 굴진, 석탄광 240억원, 일반광 180억원 및 110억원의 석재산업용자자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정보완된 中長期 探查計劃에 따라 '92년부터 '95년까지 48만1,005m의 시추와 13만1,000m의 굴진을 계획하고 금, 은, 연, 아연, 철, 중석등 일반광 6개광종을 우선지원광종으로 선정, 資金 및 技術을 집중지원 육성할 예정이다.

政府施策과 연계한 북방국가의 資源開發 진출도 적극추진해 현재 蘇聯 극동지역의 유망광산 발굴을 위한 광산조사가 실시중이라고 말하고 총450억원을 들여 印尼 파시르 유연탄광 開發事業등 4個事業의 추진에 따른 투자재원 대부분인 石油事業 基金차입이 불가능할 경우 단기적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자금 차입의 협조를 구하는 한편 長期的으로는 정부출원에 의한 재원조달 추진이 요구된다.

이밖에 광업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능동적인 經營體制를 구축, 組織改編을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석재산업지원과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전략사업으로 중점 육성할 예정이다.